

# 강천산, 야간개장 축포 인산인해

## 주차장 특설무대 다채로운 공연 등 펼쳐

순창군이 지난 1일 강천산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갖고 강천산 야간개장을 알리는 축포를 날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행사에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피서객들로 많은 인파가 몰리며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1부 관내 동호회 팀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2부에는 황송주 순창군수가 야간개장을 공식선언했다. 이어진 축

하공연에 퓨전국악공연팀인 '나니레' 팀이 여름 밤 하늘에 서정적인 목소리를 아름답게 수 놓으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본 행사인 강천산 야간산행은 어둠이 내리는 저녁 8시부터 시작했다. 특히 이날 남부지방 전역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효된 열대야로 이어지며, 더위를 잊기 위해 나온 인근 대도시 지역사람들로 강천산의

밤도 낮 만큼이나 높은 인기를 누렸다.

강천산 야간개장은 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지난 2017년부터 강천산 입구에서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에 곳곳에 화려한 조명과 영상 콘텐츠를 구축해 낮부터 밤까지 강천산을 즐기며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 준비했다. 영상 콘텐츠는 최초의 국문소설인 '설공찬전'을 각색해 제작했다.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오던 강천산 대표 폭포인 병풍폭포는 야간에는 '설공찬전'을 감상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변모해 자연화적인 야외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또한 등산로 주요지점마다 설치한 포토존은 AR 기술을 활용해 배경화면에 적통과 청룡, 도깨비 등이 나타나게 만들어 관광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황송주 순창군수는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이번 강천산 야간개장을 준비했다"면서 "강천산 인근 팔덕 수변지 개발사업부터 야간개장까지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강천산이 새롭게 발돋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천산 야간개장은 매주 수, 목, 금, 토요일만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올 11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지난 1일 강천산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갖고 강천산 야간개장을 알리는 축포를 날렸다.

# 남원, 하계전지훈련지 메카 부상

##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들 방문 잇따라

남원시가 하계전지훈련 지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 남원지역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인라인하키팀, 보치아 꿈나무 및 국가대표 삼비군, 태권도 꿈나무 등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계이트볼 팀도 곧 남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남원의 여름이 스포츠의 열기로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선수 300여명이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지훈련으로 기량을 담금질했다.

또한 서울, 경기, 경북, 광주 등 계이트볼 선수단 30여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하계훈련을 위해 남원을 찾는 것은 지리산 중심도시 남원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남원시에서는 더욱 많은 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에 실외 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남원이 호남권 전지훈련 1번지로서의 명성을 더욱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고추 직거래 장터 개설

임실군이 임실고추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한다.

건고추 출하시기를 맞아 관내 생산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임실고추를 공급한다.

군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 2층에서 임실고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달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임실장날에 맞춰 1일, 8일날에 운영한다.

임실은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커서 열매 맺음이 좋고,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고추보다 영양이 풍부하면서 과피가 두꺼워 질 좋은 고추가 많이 생산돼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명품 고추를 공급하기 위해 '햇빛나라 임실고추'라는 브랜드와 전용 포장재를 활용해 판매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24회 필봉 마을굿축제가 '필봉' 그 곳은 신명의 땅이라는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임실군 강진면 필봉농악전수관에서 열린다.

## 제24회 필봉마을굿축제로 오세요

### 15일~18일까지 공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임실필봉농악보존회(회장 양진성)가 주최/주관하는 제24회 필봉마을굿축제가 '필봉' 그 곳은 신명의 땅이라는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임실군 강진면 필봉농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과 더불어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초청해 여러지역의 농악을 선보인다. 특별공연 인문생태콘서트에서는 임실필봉농악 예능보유자인 상쇠 양진성이 '굿노는 마을', 소리꾼 배일동이 '섬진강 소리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한다.

필봉마을굿축제는 필봉농악이 전국적으로 이름난 풍물굿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故 양순용 명인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작했다.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상시로 참여할 수 있는 필봉농악 교육 체험 나도전승자, 스톨에고개 체험 마당이 있다. 프로그램중 '상쇠뽑기'와 '대동판굿'은 나도전승자의 꽃이라고 가히 표현할 수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국가무형문화재 임실필봉농악을 비롯해 국·내외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을 초청하여 여러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전통연희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5일~18일 저녁마다 필봉야류 달굿 흥이, 놀이, 굿이, 굿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주제로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필봉농악보존회는 '필봉 그 곳은 신명의 땅'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신명을 느낄 수 있는 공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6일에서 18일까지 3일 동안에는 '전국 전통연희문화 겨루기 한마당'이 펼쳐져 전통연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축제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임실필봉문화촌(063-643-1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연으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6대 농악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농기센터, 장마 후 과수 병해충 방제 철저 당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올해 기상이변으로 과수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 고온 다습 등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다.

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감염된 후에는 병충에 대해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여름철 고온과 과습은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으로, 식물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병원균과 해충이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잠복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오염원을 제거해 예

나상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은 "센터에서 현재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방이 진행 중이나 농업인들은 의심가는 증세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초기에 오염원을 제거해 예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2020년도 예산편성

####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순창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나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 공모는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사업 공모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더 많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모 대상사업은 순창군 3대 비전인 '예산 5천억, 관광객 5백만, 인구 4만 달'을 위한 사업과 도로, 교통 등 주민편익 사업, 재난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분야다.

또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 정류 및 건강장수 등 군정 전략사업과 관련된 분야도 신청가능하며 순수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도 제안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임실군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9월 27일까지 군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징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 하고,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징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5%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